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News Letter

사무실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3-14 일신빌딩 3층 / Tel : 051-462-7473 / Fax : 051-466-4709

이용흠 대표, 노자와 회장과 협력합의서 체결 정보교환과 상호관심사 협의 등 내용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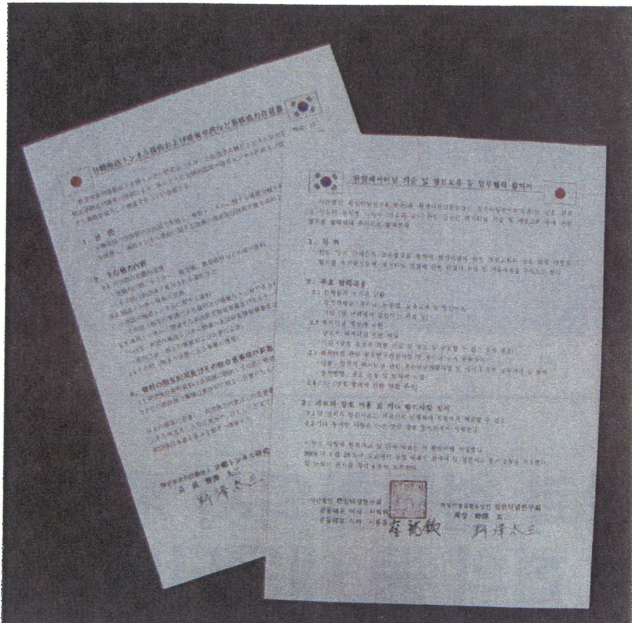
5월 28일 일본 일한터널연구회에서 서문과 3개항의 합의서에 서명 교환

민간차원에서 한일해저터널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이용흠 이사장과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한터널연구회 노자와 다이조(野澤 太三) 회장(前 법무대신,

3선 의원)이 5월 28일 오후 4시경 일본 동경 일한터널연구회 회의실에서 '한일해저터널 기술 및 정보교류 등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사진〉한일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서 한일 민간단체가 '업무협력합의서'를 공식 체결한 것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한국측에서 이용흠 공동대표와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 박치권 상임이사, 류중우 이사, 정현영 이사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측에

〈2면에 계속〉



한글과 일어로 작성된 협력 합의서

서는 노자와 회장과 하마 겐스케 부회장, 이나다 아키토시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한일해저터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의 두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담은 협력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채택된 협력합의서는 서문과 총 3개항(목적, 주요 협력내용, 자료의 상호이용 및 기타 합의사항 실시)으로 돼 있으며 제1항의 '목적'에는 '한일 양국 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정보교환과 상호관심사 협의촉진으로 해저터널건설산업의 육성 및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제2항의 '주요 협력내용'은 △ 각종 간행물 정기적 교환 △ 해저터널 정보교환 △ 공동연구개발사업 및 세미나 등 공동참여 △ 기타 합의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돼 있고 제3항 '자료의 상호이용 등'에서는 양 단체가 발간하는 각종 자료를 자국어로 번역,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의 이용흠 공동대표는 이번 일본측과의 협력합의서 체결에 대해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에서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등 한국측 대표단은 일본의 일한터널연구회의 제5회 통상총회에 초청을 받아 방일했다. 당초 함께 가려던 서의택 공동의장과 이상훈 이사(부산건설협회 회장)는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번 일본방문단에는 빠졌다.

방일 첫날인 5월 28일 협력합의서 체결 후 일본측은 이 공동대표 일행을 만찬에 초청, 환영연을

배풀었다.

이어 그 다음날인 5월29일 한국측 대표단은 총회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본측은 이용흠 공동대표를 참석한 일본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이 공동대표를 일한터널연구회의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날 총회에는 역시 한국인으로 일한터널연구회 고문으로 있는 박경부씨(사단법인 한일해저터널연구원 이사장)와 성백전씨(한국해외공사 회장)도 참석했다.

이어 셋째날인 5월30일 이 공동대표 일행은 오전 중에 간단히 동경 시내 관광을 한 뒤 이날 오후 일본에서의 2박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

운영소위 개최, 회원확보대책 등 논의 특별회원 확보로 기금 마련키로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는 운영소위가 구성돼 지난 5월14일 오후 5시반 부산 서면 롯데호텔 모야마에서 첫 운영소위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박치권 상임이사 류종우 이동욱 박성수이사, 정창훈씨 등 5명이 참석, 지난 3월9일 열린 1차 이사회에서 위임한 안건들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 회원확보대책 △ 재정확충대책 △ 국제세미나개최 △ 조찬포럼운영 전문위원회 구성 △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 창립기념 세미나 및 총회 계획 건 등이다.

운영소위는 현재 40여명인 회원 수를 앞으로 기관회원과 특별회원 등 총 2백명선으로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회원확보방안을 마련, 실천해나가기로 했다.

또 재정확충을 위해 일반회원(정회원)은 연 2만원, 이사회비는 연 10만원으로 하고 1구좌 1백만원의 특별회원 1백명을 확보하는 등 1억원의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앞으로 연 4회 '조찬 포럼'을 열기로 하고 담당이사로 정헌영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사단법인에 정책위원회와 기술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언론계와 원로교수 등 사회저명인사들 중에서 고문과 자문위원 대상자를 골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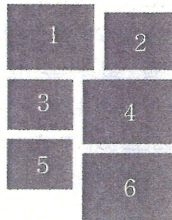
창립기념 세미나와 총회는 오는 9월 전후해서 개최기로 결정했다. *

화보

이용흠 회장 등 한국대표단의 일본 방문 활동(5월 28일 ~ 30일)



1. 이용흠 이사장과 노자와 회장이 협력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2. 총회 후 양측이 다과를 들며 환담하는 모습.
3. 서명 전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는 모습.
4. 5월 28일 저녁 일본측 초청 만찬에서 건배하는 모습.
5. 만찬 후 기념 촬영.
6. 5월 29일 열린 일한터널연구회의 제5차 통상 총회 장면.



부산-후쿠오카 경제협의회 10월 출범 올 하반기 공동사업 용역 발주 초광역경제권 구축 논의키로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의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이끌어 나갈 '경제협력협의회'가 오는 10월 창설된다. 또 양 지역의 공동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올 하반기 시작되는 등 초광역경제권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월 18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와 후쿠오카시는 4월 18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두 도시의 경제진흥실(국)장 및 관계 부서장,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광역경제권 실무협의회'를 열어 '경제협력협의회(민관)' 구성에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양측의 시와 상공회의소, 연구기관, 컨벤션뷰로 등 5~7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출범은 10월로 결정됐다.

두 도시는 오는 8월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후쿠오카 포럼'(민간 포럼) 제3차 회의에서 양측 시장이 초광역경제권 형성에 대해 공동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부산시 의원단 후쿠오카 방문 부산-후쿠오카 포럼 대표들과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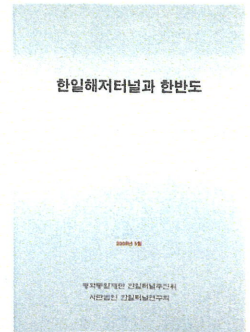
부산시의회 김현오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4명이 지난 5월14일 일본 후쿠오카 시내 한 호텔에서 '부산 - 후쿠오카 포럼'의 후쿠오카측 대표 이시하라 스스무 JR큐슈 사장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서일본신문 5월 15일자는 이들 의원단은 큐슈를 포함한 초광역경제권 형성으로 향하는 정책작성을 위해 후쿠오카를 방문했으며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의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보도했다. *

‘한일해저터널과 한반도’ 발간 A4용지 크기에 12쪽 짜리 브로슈어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는 5월 25일 '한일해저터널과 한반도'라는 제목의 브로슈어<사진>를 발간했다. 평화통일재단의 한일터널추진위와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공동명의로 발간된 이 브로슈어는 A4용지 크기에 12페이지짜리다.

이 브로슈어는 △ 한일해저터널건설추진역사와 공사내용 △ 한일해저터널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움직임 △ 한국과 한반도에서 한일해저터널이 갖는 중요성 △ 한반도 주변국들의 치열한 인프라구축경쟁 △ 베링해협 프로젝트 소개 등을 담고 있다. *



“대운하 건설 집착 버리고 한일 해저 터널 뚫어라”

김문원/공주대 교수

<편집자 주 : 이 글은 조선일보 6월 5일자 A33면 '초점'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동서고금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자기시대에 큰 업적을 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나 수에즈운하를 건설한 사람,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사람 등 나름대로 역사에 남을 업적들을 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도 재임 중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내고 싶은 마음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지도자가 의욕이 넘치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 욕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의욕까지 꺾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좁디 좁은 한반도 배를 갈라 뱃길 낼 생각을 버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통로를 만들라고 제안하고 싶다.

5000만 명도 안 되는 내수시장 가지고는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없다. 1억3000만 명의 일본을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2200만의 북한과 13억의 중국 그리고 1억4000만의 러시아를 내수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길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일 간에 해저터널을 뚫고, 북한을 경유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통하는 육로와 철길을 개통시켜야 한다.

오는 7월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니 일본 총리에게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하길 바란다. 공사비용은 인구수와 국가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한국 1 대 일본 3의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운하 건설에 대한 집착은 버리고 한일 해저터널을 뚫고, 대륙과 연결되는 남북 고속도로와 철로를 개통시키는 데 몰입하여 글로벌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

社団法人 韓日トンネル研究会

第3号 2008年6月7日発行

News Letter

「李龍欽代表、野沢会長と協力協議書締結

情報交換と相互関心事の協議等の内容

5月28日 日本の日韓トンネル研究会で序文と3項目の合意書に署名交換

民間レベルで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を推進している韓国の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のイ・ヨンフム（李龍欽）理事長と日本の特定非営利活動法人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野沢太三会長（元法務大臣、3選議員）が5月28日午後4時頃日本の東京、日韓トンネル研究会会議室で「日韓海底トンネルの技術および情報等業務協力合意書」を締結した。＜写真＞

日韓海底トンネルの建設と関連し日韓の民間団体が「業務協力合意書」を公式的に締結したのだ。

この日の締結式では、韓国側からイ・ヨンフム（李龍欽）共同代表とホ・ムンド（許文道）元統一院長官、パク・チゴン（朴致権）常任理事、ユ・ジョンウ（柳鐘又）理事、チョン・ホニョン（鄭憲永）理事ら5名が参席し、日本側は野沢会長と濱建設副会長、稲田昭俊事務局長らが参席した。

両団体は日韓海底トンネルを実現するためには両国の2つの民間団体の交流協力が必須だということに共感し、そのために具体的な行動指針を入れた協力合意書に署名した。

採択された協力合意書は序文と総3項目（目的、主要協力内容、資料の相互利用およびその他合意事項実施）からなっており、第1項の「目的」では「日韓両国団体間の交流協力を通し、情報交換と相互関心事の協議促進により海底トンネル建設産業の育成および技術支援を目的とする」となっている。

第2項の「主要協力内容」は△各種刊行物の定期的交換△海底トンネルの情報交換△共同研究開発事項およびセミナー等の共同参加△その他合意による事業推進となっており、第3項の「資料の相互利用等」では両団体が発刊する各種資料を自国語に翻訳し会員に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等の内容となっている。

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のイ・ヨンフム（李龍欽）共同代表は今回、日本側との協力合意書締結について「日韓海底トンネル推進のための過程で非常に意味深いこ

と」とし、「これを機に日韓両国で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のためのより具体的な動きがあればと思う」と話した。

李共同代表ら韓国側の代表団は、日本の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第5回通常総会に招請を受け訪日した。当初共に行く予定であったソ・イテク（徐義澤）共同議長とイ・サンウン（李相云）理事（釜山建設協会会長）は海外出張中のため今回の日本訪問団からは外れた。

訪日初日である5月28日の協力合意書締結後、日本側は李共同代表一行を晚餐へ招請、歓迎の宴を設けた。

次の日、5月29日、韓国側の代表団は総会に参席し、その席で日本側はイ・ヨンフム（李龍欽）共同代表を、参席した日本の会員たちに紹介し、李共同代表を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顧問として委嘱した。この日の総会では、同じく韓国人として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顧問であるパク・キョンブ（朴慶夫）氏（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院理事長）とソン・ベクチョン（成百詮）氏（韓国海外公社会長）も参席した。

続いて3日目である5月30日、李共同代表一行は午前中に簡単に東京市内観光をした後、午後に日本からの2泊3日間の日程をすべて終え仁川空港と金海空港を通して帰国した。

運営小委員会開催、会員確保対策等を論議 特別会員確保で基金を集めることに

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では運営小委員会が構成され、去る5月14日午後5時半、釜山西面ロッテホテル桃山で初めての運営小委員会を開いた。

この日の集まりにはパク・チゴン（朴致権）常任理事、ユ・ジョンウ（柳鐘又）、イ・ドンウク、パク・ソンス理事、チョン・チャンフン氏ら5名が参席。去る3月9日に開かれた1次理事会で委任した案件を審議した。

この日論議された案件は△会員確保対策△財政拡充対策△国際セミナー開催△朝食フォーラム運営専門委員会構成△顧問および諮問委員委嘱△創立記念セミナーおよび総会計画の件等だ。

運営小委員会は現在40余名の会員数を今後機関会員と特別会員等、総2百名程度に増やすこととし、具体的な会員確保の方法を準備し実践していくことにした。

また財政拡充のため、一般会員（正会員）は年2万ウォン、理事会費は年10万ウォンとし、1口百万ウォンの特別会員100名を確保する等、1億ウォンの基金を集めることにした。

また今後、年4回「朝食フォーラム」を開くことにし、担当理事としてチョン・ホニョン（鄭憲永）理事を選任する一方、社団法人に政策委員会と技術委員会等2つの専門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に決定した。

これと共に言論界や元老教授等の社会著名人士たちの中で顧問と諮問委員対象者を選び、理事会の議決を経て委嘱することにした。

創立記念セミナーと総会は来る9月前後に開催することに決定した。

会報 李龍欽会長等韓国代表団の日本訪問活動（５月２８日～３０日）

- １．イ・ヨンフム（李龍欽）理事長と野沢会長が協力合意書に署名している。
- ２．総会后、両団体が軽食を囲みながら歓談する様子
- ３．署名前、合意書の内容を検討している様子
- ４．５月２８日夕食、日本側の招請晚餐で乾杯する様子
- ５．晚餐後、記念撮影
- ６．５月２９日に開かれた日韓トンネル研究会の第５回通常総会の場面

釜山―福岡、経済協力協議会１０月出帆

下半期共同事業用役発注

超広域経済圏構築の論議することに

釜山と日本の福岡の超広域経済圏形成を導く「経済協力協議会」が、来る１０月に創設される。また、両地域の共同事業を導出するための研究用役が来る下半期に始まる等、超広域経済圏の構築論議が本格化している。

去る４月１８日付の国際新聞の報道によると、釜山市と福岡市は４月１８日釜山市庁国際会議室で２都市の経済振興室(局)長および関係部署長、公務員等１２名が参席する中「超広域経済圏実務協議会」を開き、「経済協力協議会(民間)」の構成に合意した。この協議会は両側の市と商工会議所、研究機関、コンベンションビューロ等５～７つの機関で構成され、出帆は１０月に決定された。

２都市は、来る８月に釜山で開かれる「釜山―福岡フォーラム(民間フォーラム)」第３次会議で両側市長が超広域経済圏の形成に対し共同発表する方法を推進することにした。

釜山市議員団、福岡訪問

釜山―福岡フォーラム代表たちと懇談会

釜山市議会キム・ヒョンオ議員を団長とする議員４名が去る５月１４日、日本の福岡市内のホテルで「釜山―福岡フォーラム」の福岡側代表石原進 JR九州社長等に会い懇談会をもった。

西日本新聞５月１５日付にこの議員団は九州を含む超広域経済圏の形成に向かう政策作成のため福岡を訪問し、２地域が共に発展するためには相互協力が必要だということに意見を同じくしたと報道した。

**「日韓トンネル研究会と朝鮮半島」発刊
A4 用紙サイズで 12 ページの小冊子**

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は、5月25日「日韓海底トンネルと朝鮮半島」という題名の小冊子＜写真＞を発刊した。平和統一財団の日韓トンネル推進委員会と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の共同名義で発刊されたこの小冊子は A4 用紙サイズで 12 ページ綴りだ。

この小冊子は△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推進歴史と工事内容△日韓海底トンネルをめぐる日韓両国の動き△韓国と朝鮮半島で日韓海底トンネルがもつ重要性△朝鮮半島周辺国の熾烈なインフラ構築競争△ベ어링海峡プロジェクト紹介等の内容だ。

「大運河建設の執着を捨て、日韓海底トンネルを掘れ」

キム・ムンウォン/広州大教授

＜編集者：この文は朝鮮日報 6 月 5 日付け A3 3 面「焦点」に報道された記事です。＞

古今東西の指導者たちは皆、自分の時代に大きな業績を残そうという欲が強い。万里の長城を築いた人やスエズ運河を建設した人、慶釜高速道路を作った人等、それなりに歴史に残る業績を残した人も同じだ。イ・ミョンパク（李明博）大統領も、在任中に歴史に残る大きな業績を残したい心で朝鮮半島大運河計画を立てたのだろう。指導者が意欲に溢れることは褒めるべきことであって悪く言うことではない。問題は多数の国民が反対することにある。だからといって仕事をしたがる大統領の意欲まで削ってはならない。その代案として、非常に狭い朝鮮半島の腹を割いて船道を作る考えを捨て、世界に伸びる道路を作れと提案したい。

5000万人にもならない内需市場をもってしては世界最強国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1億3000万人の日本を内需市場にし、2200万の北朝鮮と13億の中国、そして1億400万人のロシアを内需市場に引き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まず道を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ために日韓間に海底トンネルを掘り、北朝鮮を経由し中国とロシアに通じる陸路と鉄道を開通しなければならない。

来る7月、日本を訪問するというのが日本の総理に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を提案することを願う。工事費用は人口の数と国家の経済力等を考え、韓国1対日本3の負担で推進するのが良いと思う。大運河建設に対する執着は捨て日韓海底トンネルを掘り、大陸と連結する南北高速道路と鉄道を開通させることに落ち着き、グローバル時代の偉大な指導者となることを願う。